

메시지 6
표현

성경: 출 40:34-35, 왕상 8:10-11, 엡 3:21, 5:26-27, 계 4:3, 21:10-11, 18

I.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표현의 회복이다.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중심 노선은 삼일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창 1:26, 2:7, 사 43:7, 고후 4:7, 참조 단 5:23.

- A. 구약 전체는 아홉 명의 위대한 사람들(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인 장막과 성전으로 구성된다—창 1:26, 4:4, 26, 5:24, 6:8, 17:1-5, 24:4, 28:10-13, 50:26, 출 40:34-35, 왕상 8:1-11.
- B.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장막이자 성전이신 유일한 한 사람에 대하여 이 유일한 사람의 확장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로 구성된다—요 1:14, 2:19-21, 고전 3:16-17, 딤후 3:15, 히 3:6, 엡 3:19-21, 계 21:3, 22, 10-11.

II. 장막과 언약궤의 역사(歷史)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교회의 황폐함,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교회의 회복을 묘사해 준다—출 25:9-10, 26:26-30, 40:38.

- A. 장막의 중심과 내용인 언약궤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중심과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출 25:22, 40:21, 골 2:9, 엡 2:21-22, 딤후 3:15.
- B. 언약궤의 역사의 첫째 단계에서,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었다. 이것은 교회 역사의 첫째 단계에서 정상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셨다는 것을 상징한다—출 40:34-35, 행 9:31.
- C. 이스라엘의 하락으로 인하여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장막에서 분리되었다. 그 결과 장막은 합당한 내용이 없는 빈 그릇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둘째 단계에서 교회가 하락하고 그리스도의 실재와 임재를 잃어버린 것을 상징한다—삼상 3-4장, 계 3:20.
 - 1. 이스라엘은 하락 가운데 있었을 때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그들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갈망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과거의 승리에 근거하여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신뢰했다—민 10:35, 수 6장, 참조 빌 3:13-14
 - 2. 이스라엘은 하락 가운데 있었을 때 극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신에, 언약궤 자체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삼상 4:11상, 21-22, 시 78:61.
 - 3. 언약궤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여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자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민 10:33-36, 삼상 4:4
 - 4.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을 횡령한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안전과 평화와 안식과 이익을 위하여 강제로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나가시게 한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 5.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의 필요로 대치하고 있다.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증거를 대치할 때, 하락이 시작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 6.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횡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그분의 경륜을 위했던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생활하며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삼상 2:30하, 35, 참조 왕상 8:48, 렘 32:39.

- D. 나중에, 언약궤는 회복되어 먼저 기랴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이십 년 동안 머물렀고(삼상 6:2-7:2), 그 후에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겨져 그곳에 석 달을 머물렀다(삼하 6:1-11, 참조 삼상 1:24, 수 18:1). 이것은 2세기 이후로 주님의 임재(언약궤)는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생활(장막)을 갖지 못한 많은 ‘오벰에돔들’ 이 일으켜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 E. 다윗은 언약궤를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가 언약궤를 위해 준비한 천막 안으로 옮겼는데, 그 천막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선된 곳인 시온 산에 있는 다윗의 성 안에 있었다(삼하 6:12-19, 대상 15:1-16:1). 이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는 또 다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천막이 예표해 주는) 교회 생활의 부적합한 실행 안에서 그분을 소유했다.
- F.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끝마친 후에, 언약궤는 정상적인 상황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표현인 합당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왕상 8:1-11, 엡 3:16-21.

III. 이스라엘의 하락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이 파괴된 역사와, 성전과 성과 성벽이 재건축된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표현을 위하여 하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표한다.

- A.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인 솔로몬 자신이 다시 여러 산당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 산당들은 정육과 야심과 우상 숭배와 연관되었고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왕상 11:1-8, 43, 12:31.
 - 1.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역량 있는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사람은 아니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은사였을 뿐 생명의 분량은 아니었다.
 - 2. 생명을 떠난 역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을 주입하는 뱀과 같고(참조 출 4:2-4),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비둘기와 같다(요 1:32).
- B. 하나님의 백성은 하락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 성전과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은 우상과 반대된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겔 2:3, 8:2-4, 10, 11:23, 14:3, 5, 40:1, 43:2, 10, 요일 5:21.
- C.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과 성이 파괴된 후, 성전과 성과 성벽은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재건축되었다—스 3:6하-13, 6:13-15, 느 4:1-23.

IV. 성벽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은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계 4:3, 21:11, 18-19.

- A.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쉬이는 생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연합된 생명을 삶으로써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자아-모양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롬 5:10, 례 2:4-5, 고전 12:24.
- B.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신부로 드러지도록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겨짐으로써 매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히 2:10-11, 엡 5:26-27, 3:21.